

보도 일시	2021. 10. 27.(수) 15:00	배포 일시	2021. 10. 27.(수) 15: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신용식 (044-203-2381)
		담당자	사무관 이규원 (044-203-2378)

## 한·중·일, 코로나 이후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10. 27.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비대면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10월 27일(수),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교류와 협력 강화 약속한 공동선언문 채택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교류 협력 방향'을, ▲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 관계자들은 '3국 콘텐츠 산업 상호 협력 및 공동 제작 촉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위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3국 콘텐츠 산업 교류와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기업 간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우리 콘텐츠 기업 12개사, 화상으로 중국, 일본 기업과 교류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중·일 3국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교류회를 열었다. 기업교류회에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 12개사가 중국·일본의 기업들과 화상으로 발표회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기업 간 교류 확대와 공동 제작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정부와 업계 등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개최해오다가 2010년에 잠시 중단했으나 2015년 한·중·일 정상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재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라며, “이번 회의가 3국 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공동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정부 간 회의 일정표  
2.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  
별도 붙임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사진



※ 올해 행사는 중국 측 주최·주관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0:00-10:05(5')	<b>중국대표 인사말, 중국측 참석인원 소개</b> -중국(5') : 문화여유부 산업발전사 사장	한중일 동시 통역
10:05-10:10(5')	<b>각국대표 인사말</b> -한국(3')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일본(3') :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장	
10:10-10:15(5')	<b>축사</b> -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인사(5')	
10:15-10:25(10')	중국 길림성 소개 -중국 길림성문화여유청 -중국 장춘시인민정부	
10:25-11:10(45')	<b>제1부 기조연설</b> <b>&lt;코로나19 이후 문화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gt;</b> -중국(10') : 문화관광부 산업발전사 부사장 -한국(10') :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 -일본(10') : 경제산업성 미디어콘텐츠과장 -의견교환(15') : 각국의 발언을 바탕으로 3개국의 논의	
11:10-11:25(15')	<b>휴식</b>	
11:25-12:10(45')	<b>제2부 각국 콘텐츠산업 공공기관/협회 주제발표</b> <b>&lt;한중일 콘텐츠산업 분야 공동합작 및 협력 추진&gt;</b> -중국(15') : ① 베이징 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총지배인 ② 중국문화오락산업협회 비서장 -한국(15')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본부장 -일본(15') : 영상산업진흥기관 총괄부장	
12:10-12:15(5')	<b>공동선언문 발표 및 채택</b> - 중국 측 <공동선언문> 본문 낭독	
12:15-12:20(5')	<b>한중일 정부대표 사진 촬영(스크린샷)</b>	
12:20-12:30(10')	<b>폐회사</b> -중국(5') : 문화여유부 산업발전사 사장 -한국(2')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일본(2') :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장	

##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공동 성명

### 1. 제14회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개요

제14회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은 2021년 10월 27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산업발전사 가오정 사장,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노하라 사토시 상무정보정책국장 및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3국 관련 기구 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의장국을 담당했다.

본 포럼에서 3국은 한중일 디지털문화산업의 합작 기회와 경로에 대해 심도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3국은 디지털문화산업이 문화산업 합작의 중요한 영역이고 국민문화 수요와 국민역량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코로나19 이후 문화산업의 회복과 번영 발전을 촉진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3국은 상술한 의제에 대해 향후 계속해서 심도있는 토론 전개, 디지털문화기업 지원,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합작 조직 및 공동 발전 촉진에 동의했다.

3국은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포럼이 3국 정부 간의 문화산업 교류 합작의 중요한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3국의 문화기업 교류합작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고 확신했다. 3국은 향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2. 3국의 문화산업 교류와 합작 강화

3국은 향후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 3국 간 문화산업 정책과 조치 및 발전 경험 교류 추진에 모두 동의했다. 그 외에 3국은 지원

및 서비스 플랫폼 건립을 추진하는 등 기업과 업계의 교류협작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3국은 문화산업 기업의 교류 협작 강화를 지지하고,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각국에서 개최하는 온·오프라인 국제 문화산업 박람회 상호 참가를 장려하며, 협력 프로젝트 전개를 추진하고, 비즈니스 상담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은 기업의 한중일 디지털문화산업 연합 인큐베이팅 메커니즘 협작과 정기적인 온라인 활동 전개를 지지하고, 디지털문화산업의 인재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 3. 다음 포럼에 관하여

3국은 2022년에 제15회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5회 포럼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정부부문과 문화산업계의 포럼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2021년 10월 27일, 제14회 포럼은 본 공동 성명을 통과시켰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보유한다. 만약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다.